



천주교벤투라성당

VENTURA KOREAN CATHOLIC CHURCH

SANTA BARBARA PASTORAL REGION / ARCHDIOCESE OF LOS ANGELES

본당신부 홍준기 예로니모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805-814-3886)

주소 601 S D St. Oxnard, CA 93030

사무실 805-253-0909

홈페이지 venturakcc.org

이메일 venturakcc@gmail.com

미사시간 안내		
주일	금	첫주 목 (성시간)
오전 10시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 30분

연중 제16주일

2 0 2 6

0 7

1 9

주보

입당송 시편 54(53),6,8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흠족하리이다.

제1독서 지혜서 12,13.16-19

화답송 시편 86(85),5-6.9-10.15-16ㄱ(◎ 5ㄱ)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제2독서 로마서 8,26-27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마태오 13,24-43

영성체송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한순간의 실수로 잣더미가 된 삶의 터전

바퀴벌레 잡으려 불 붙이다 화재...어머니와 두 자녀 뿔뿔이 흩어져

까만 재가 되어 버린 삶의 터전 앞에 선 김예슬(37)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닥치자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김씨는 피부미용사로 일하며 어머니와 15살·11살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전 남편은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만나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만큼 부침도 컸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고, 자녀들은 전 남편이 데려갔었다. 하지만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생활과 일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 남편의 경제활동마저 어려워지면서 두 자녀는 2년 전 김씨 품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종일 일하면서도 자녀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했다.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첫째는 엄마와 지내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활동에 쉽게 흥미를 잃고 금세 포기하던 둘째도 꾸준한 돌봄 덕에 자신감을 회복했다. 특히 새숲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밴드 활동을 하면서 “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목표도 갖게 됐다. 그렇게 김씨 가정은 풍족하진 않아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6월 26일 새벽, 첫째가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 불에 에프킬라를 뿌리다 냉장고에 불이 붙었다. 불길은 삽시간에 집안으로 번졌고, 집은 전소됐다.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일 정도였다. 주택 내부 전체는 그 을음과 연기로 심하게 훼손됐다. 냉장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전제품과 가구, 생활용품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김씨는 “너무 큰 상황이 눈앞에 닥치니 헛웃음만 나왔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화재 보험을 들지 않아 복구비용은 고스란히 김씨가 감당해야 한다. 내부 보수공사와 도배·장판 공사,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마련까지 필요한 비용은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인들이 도움을 주고 주민센터 지원금도 받았지만, 무너진 일상을 되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어렵게 일상을 회복해가던 김씨 가정은 한순간의 실수로 삶의 터전을 잃었고,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기본 생활조차 쉽지 않아 주변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화재 후 어머니는 교회 쪽방에서 지내고 있고, 김씨와 둘째는 지인 집에 머물고 있다. 첫째는 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다. 한집에서 다시 일상을 꾸리는 것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잘 살아보려 아무리 애써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김씨는 타고난 긍정적인 성격으로 엄마의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 “아이들만 보고 살아왔어요. 엄마잖아요. 버텨야죠.”

(미주가톨릭평화신문 7월 19일자 발췌)

후견인 : 새숲지역아동센터장 박현선(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수녀

“김씨 가정은 스스로 일어서려 애써왔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 도움이 절실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나눔은 집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가족이 다시 모여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어렵게 품은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피어나는 곳’ 후원안내

후원을 해주실 교우분들은 김미숙 마리안나 복지분과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 7월 지향 기도

<인간 생명 존중> 인간 생명을 하느님의 선물로 인식하여 모든 단계에 있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기도합니다.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본당 공동체를 봉헌하는 기도지향

- 1) 하느님 말씀을 통한 영적성장을 위하여
- 2) 내면의 상처 치유와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극복을 위하여
- 3) 겸손으로 서로 섬김을 위하여
- 4) 성사생활 참여를 어려워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 5) 예비신자 입교와 새 신자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7월	묵주기도	성경읽기	평일미사	희생, 봉사, 자선
1주	260	8	7	2
2주	750	1	6	7
3주	야외미사 관계로 다음주에 함께 집계합니다			
4주				
5주				
합계	1,010	9	13	9

알 립 니 다

1. 위령기도

최정진 클라라 모친이신 김정운 세실리아(87세) 교우께서 7월 8일(수) 09시 30분(미국시간)에 선종 하셨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연도가 있겠습니다.

2. 본당 야외 미사

본당 야외미사를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총무님, 서기님, 성모회, 전례부장, 반주자, 도네이션 해주신 모든 교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 맞이 '33일 간의 봉헌'을 위한 특강

- 일시 : 7월 25일(토) 10:00 AM - 4:00 PM
- 장소 : 바실 성당 지하경당 (637 Kingsley Dr. LA CA 90005)
- 회비 : 20불 (점심 제공)
- 신청 마감 : 7월 19일(주일) 까지

4. 제 35회 남가주 성령쇄신 대회

- 일시 : 8월 22일(토) 09:00-16:00
- 장소 : St. John of God Catholic Church (3819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 회비 : 참가비 20불, 도시락 15불
- 문의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213-500-6722
- 주제 :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 강사 : 정현철 알렉시오 신부, 최성영 요셉 신부, 김대선 바오로 신부

5. 북가주 미션순례

8월 19일(수) - 22일(토)에 예정되었던 북가주 미션순례는 9월 30일(수) - 10월 3일(토)로 일정이 연기 되었습니다.

6. 과달루페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6일(월)-19일(목)
- 장소 : 과달루페 성모성지 (멕시코 시티)
- 신청 : 인원 파악을 위해 앤디 대건 안드레아 사목회 서기님께 신청바랍니다.

7. 성경공부 그룹나눔

- 일시: 사순시기 부터 월 1회, 조별 시간에 맞춤
- 장소: 성당 or 조의 가정
- 조편성: 서로 시간이 맞는 인원 중심으로 2-5명

8.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셀"(Cell) 기도 모임 안내

- 매주 금 09:30 미사 후 "셀(Cell)"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9.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기도 봉헌

- 매주 게시판에 구역별로 기도를 집계하여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미사 전이나 후에 바로 자석을 부착해 주시면 집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0.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김광일 빈첸시오 형제님의 예수성심상 봉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례안내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7월 19일 연중 제16주일	7월 26일 연중 제17주일
제1독서 : 윤원희 대건안드레아 제2독서 : 하주영 프란치스코	제1독서 : 박태진 콜베 제2독서 : 박미라 요세피나

재정소식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들의 정성				주일미사/ 평일미사		
	교무금	헌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7월 5일	\$850	\$270		\$1,120	20/0		20/0
7월 12일	\$700	\$365		\$1,065	33/7		33/7
7월 19일							
7월 26일							
합 계	\$1,550	\$635		\$2,185			

교무금 현황 김수정(1-6), 문기선(7)

6월 결산보고 수입: \$6,189/ 지출: \$4,546.66/ Checking: \$26,213.44/

Savings : \$20,485.44